

종려 주일 / 수난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PALM / PASSION SUNDAY

주후 2024년 3월 2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41 장 “호산나 호산나” (통일 132)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9 번 종려주일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사(Isaiah) 50:4-9 상, 요(John) 12:12-16	박은정 집사
찬 양 Anthem	“슬픔의 잔”	찬양대
설 교 Sermon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아”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약한 나로 강하게”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286 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통일 21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말씀 앞에서 잠잠히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늘 마음이 조급해 했고, 쉽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불안한 우리의 마음과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43: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개역개정 **요12:13**)

“They took palm branches and went out to meet him, shouting,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 (NIV **John 12: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24 (주일)	3/25 (월)	3/26 (화)	3/27 (수)	3/28 (목)	3/29 (금)	3/30 (토)
	출36	출37	출38	출39	출40	레1	레2,3
본문	요15	요16	요17	요18	요19	요20	요21
	잠12	잠13	잠14	잠15	잠16	잠17	잠18
	엡5	엡6	빌1	빌2	빌3	빌4	골1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성/금/요/일/ 특/별/예/배

고난주간 특새. (3/25월-3/29금 오전6:30)	주제 -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음이라”
성금요일 특별예배 (3/29금 오후7:30)	“받으신 고난으로” (히4:14-16, 5:7-9)

지난 주일(3/17, 사순절 다섯째 주일) 말씀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 (렘 31:31-34, 요 12:20-33)

구약 성경에서 “언약(舊約 Covenant)”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브리트(Berit)”는 모두 310번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차례로 언약을 맺으셨고, 무엇보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각별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셨더라도, 그 언약은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약 본문(렘31:31)에 나오는 “새 언약(New Covenant)”은 그 이전의 언약들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31:33)는 아주 특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내면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더해져서, (마침내) 말씀의 열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의 신약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12), 또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